

경제 및 고용 동향

◆ 2014년 1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2%, 전월대비 1.4% 증가

○ 2014년 1월 생산은 제조업에서 감소하였으나 공공행정, 건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늘어 전년동월대비 1.2% 증가함.

－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및 부품(1.8%), 1차 금속(0.8%)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기타운송장비(-28.9%), 영상음향통신(-18.8%), 자동차(-3.3%) 등에서 줄어 전년동월대비 4.2%(전월대비 포함) 감소함.

－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1.6%), 하수·폐기물처리(-2.7%)에서 감소하였으나 보건·사회복지(6.3%), 도·소매(2.2%), 숙박·음식점(1.7%) 등에서 늘어 전년동월대비 2.0%(전월대비 0.9% 증가) 증가함.

○ 2014년 1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5.7% 증가, 투자는 전년동월대비 1.7% 감소함.

－ 소비재판매액지수는 의복 등 준내구재(-3.1%)는 감소하였으나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9.9%)와 승용차,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5.5%) 판매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5.7%(전월대비 2.4% 증가) 증가함.

－ 설비투자는 일반기계류 등에서 투자가 증가하였으나 전기 및 전자기기, 기타운송장비 등에서 줄어 전년동월대비 1.7%(전월대비 4.5% 감소) 감소함.

－ 건설기성(불변)은 건축 및 토목공사에서 실적이 늘어 전월대비 9.7% 증가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 12.8% 증가함. 건설수주(경상)는 기계설치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주택, 철도 등에서 수주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48.3% 증가함.

- 2014년 1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3p 상승,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보합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비농림어업취업자수, 광공업 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건설기성액 등 모든 지표가 상승하여 전월대비 0.3p 상승함.
 -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기계류내수출하지수, 코스 피지수, 구인구직비율 등은 하락하고 소비자기대지수, 채고순환지표, 국제원자재 가격지수 등이 상승하여 전월대비 보합

◆ 2014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1.0% 상승(생활물가지수 0.4% 상승)

- 2014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79(2010년=100)를 기록하여 전월대비 0.3% 상승, 전년동월대비 1.0% 상승하여 지난달(1.1%)에 비해 0.1%p 하락함.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1.3%), 교통(-0.8%), 통신(-0.2%) 부문은 하락하였고, 의류 및 신발(3.9%), 주택·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2011					2012					2013p					2014p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p	연간p	1월	1월p
생산	광공업 생산	9.1	6.2	5.4	3.4	6.0	3.9	1.3	-0.3	0.8	1.3	-0.8	0.0	0.2	1.9	0.4	8.7	-3.8(0.1)
	제조업 생산	9.3	6.3	5.2	3.6	6.0	4.1	1.2	-0.3	0.6	1.4	-0.8	0.0	0.1	2.0	0.3	9.2	-4.2(0.0)
	출하	10.0	5.4	4.7	2.8	5.6	3.1	1.7	0.6	0.5	1.5	-0.8	0.5	0.2	1.8	0.4	7.1	-4.7(-0.9)
	내수	7.3	4.0	3.8	1.5	4.1	0.8	-0.5	-0.9	-1.2	-0.5	-3.2	-1.9	-1.0	1.6	-1.1	4.8	-4.0(-0.7)
	수출	14.1	7.5	5.9	4.5	7.8	6.6	4.8	2.6	2.7	4.2	2.1	3.5	1.7	2.2	2.3	9.9	-5.6(-1.1)
	서비스업생산	2.8	3.3	4.5	2.7	3.3	2.5	1.7	1.6	1.3	1.7	0.8	1.7	0.8	2.1	1.4	1.8	2.0(0.9)
소비	소비재 판매	5.2	6.3	4.0	2.6	4.5	2.8	1.4	2.7	2.5	2.4	0.3	1.0	0.7	1.2	0.8	-2.7	5.7(2.4)
투자	설비투자	5.2	7.4	3.2	-1.4	3.5	8.2	-4.2	-7.9	-6.4	-2.8	-13.1	-4.0	2.7	11.4	-1.3	-8.1	-1.7(-4.5)
물가		4.8	4.2	4.8	4.0	4.0	3.0	2.4	1.6	1.7	2.2	1.6	1.2	1.4	1.1	1.3	1.6	1.0(0.3)

주: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 12. 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를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3) 물가상승률은 2014년 2월 기준임.
 4) p는 잠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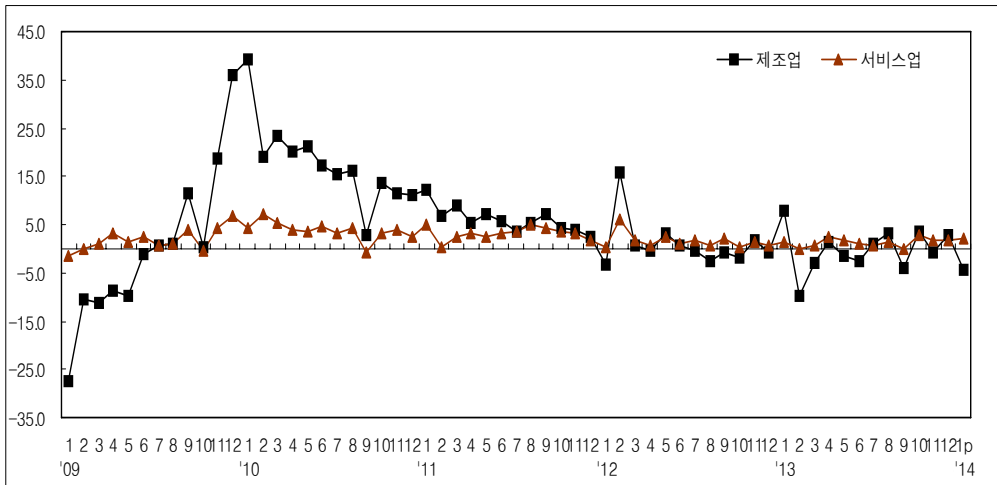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수도·전기 및 연료(3.6%),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1.6%), 음식 및 숙박(1.4%), 오락 및 문화(0.2%) 등 나머지 부문은 모두 상승함.

- 2014년 2월 생활물가지수는 107.94를 기록하여 각각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0.4% 상승함.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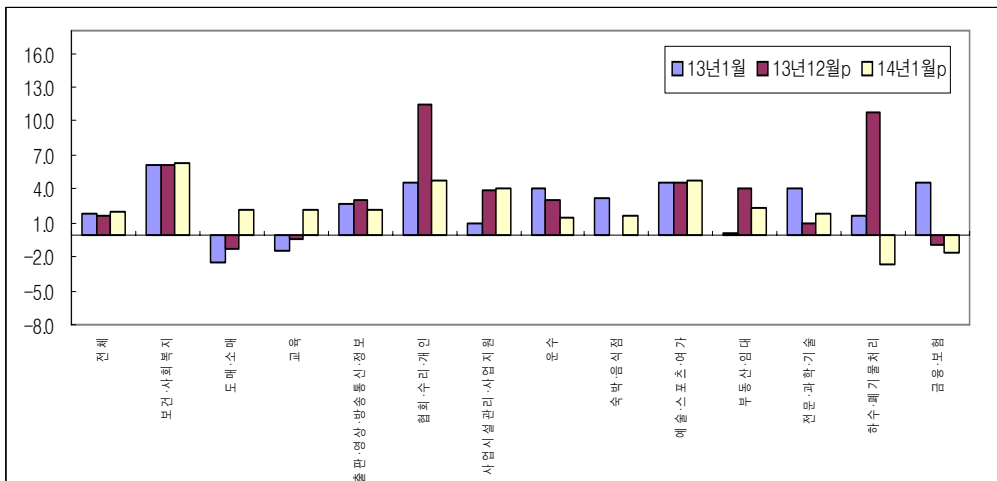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2014.2), 『2014년 1월 산업활동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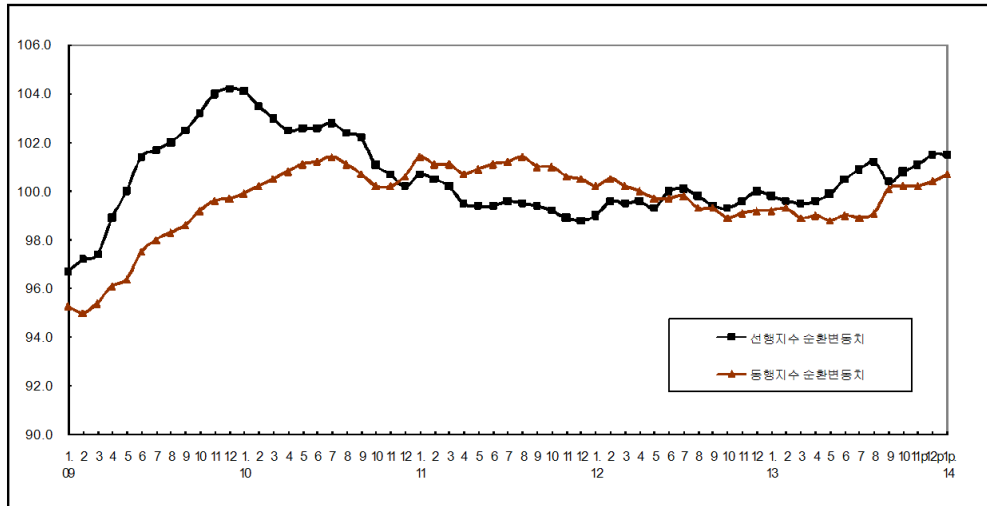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3]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10=100)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KOSIS.

(김복순,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

◆ 취업자 증가폭 확대, 경제활동참가율 · 고용률 상승

- 2014년 2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5,99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24천 명(4.1%) 증가함.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5,172 천 명으로 496천 명(3.4%) 증가하였고, 여성은 10,826 천 명으로 527천 명(5.1%) 증가하였음.
- 2014년 2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1.4%로 전년동월대비 1.8%p 상승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성(73.3%)은 전년동월대비 1.7%p, 여성(50.0%)은 전년동월대비 1.9%p 상승함(그림 4 좌측 참조).
- 2014년 2월 중 고용률은 58.6%로 전년동월대비 1.4%p 상승함.
 - 남성의 고용률은 70.1%로 전년동월대비 1.5%p 상승하였고 여성의 고용률은 47.6%로 전년동월대비 1.3%p 상승하였음(그림 4 우측 참조).
- 2014년 2월 중 취업자는 24,81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35천 명(3.5%)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4,51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53천 명(3.2%) 증가하였고, 여성 취업자는 10,30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82천 명(3.9%) 증가하였음 (그림 5 참조).

- 2014년 2월 중 실업자는 1,17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9천 명(19.1%)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4.5%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하였음.
 - 남성 실업자는 65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4천 명(7.2%) 증가하였고 여성 실업자는 52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5천 명(38.3%)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 남성이 4.3%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하였고 여성은 4.8%로 전년동월대비 1.1%p 상승하였음.

〈표 2〉 최근의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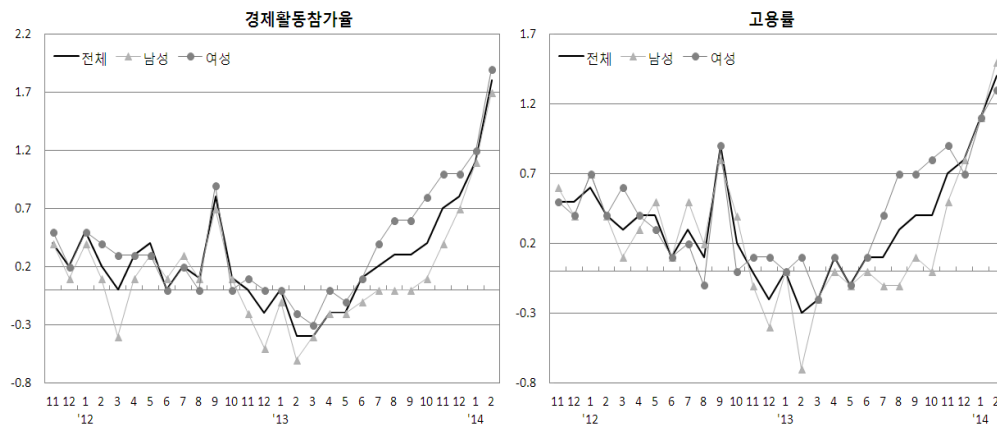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2		2013				2014	
	4/4분기	1/4분기	2월		2/4분기	3/4분기	1/4분기	
			1월	2월			1월	2월
경제활동인구	25,526 (1.3)	25,091 (0.9)	24,973 (0.6)	26,138 (1.1)	26,187 (1.7)	26,078 (2.2)	25,650 (3.0)	25,997 (4.1)
참가율	61.1	59.9	59.6	62.2	62.1	61.7	60.6	61.4
취업자	24,804 (1.4)	24,184 (1.1)	23,984 (0.8)	25,326 (1.3)	25,410 (1.7)	25,346 (2.2)	24,759 (2.9)	24,819 (3.5)
고용률	59.4	57.7	57.2	60.2	60.3	60.0	58.5	58.6
실업자	722	907	990	812	777	733	891	1,178
실업률	2.8	3.6	4.0	3.1	3.0	2.8	3.5	4.5
비경제활동인구	16,258 (1.5)	16,831 (2.0)	16,953 (2.5)	15,911 (1.5)	15,982 (0.5)	16,167 (-0.6)	16,654 (-1.9)	16,346 (-3.6)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100.
 자료 : 통계청(2014. 3), 『2014년 2월 고용동향』.

〈그림 4〉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좌)과 고용률(우)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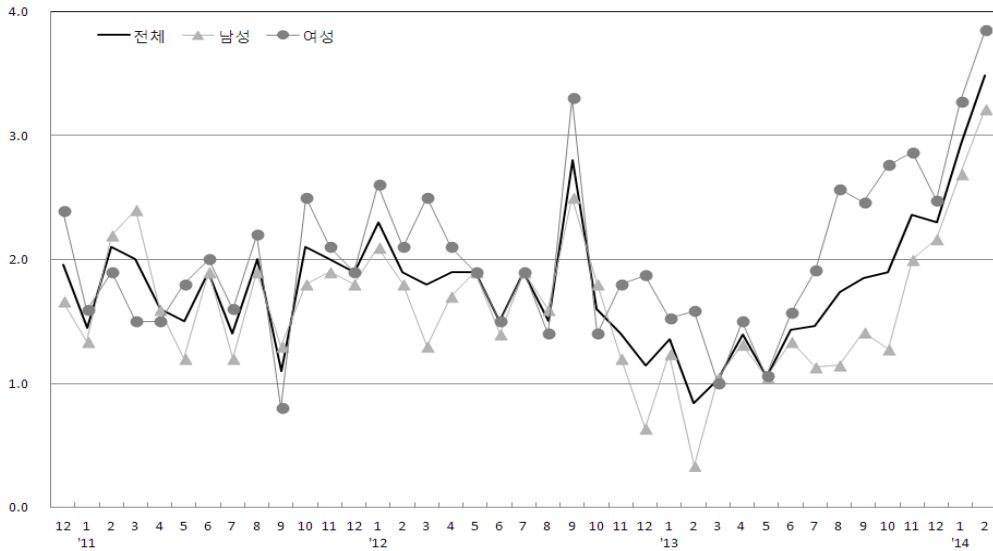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5]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2014년 2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6,34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06천 명(-3.6%) 감소함.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53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87천 명(-4.9%) 감소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80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19천 명(-2.9%) 감소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26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5천 명 증가함.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58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3천 명(-14.2%) 감소하였고, 정규교육기관 재학,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을 포함하는 ‘재학·수강’은 4,021천 명으로 94천 명(-2.3%) 감소함.

◆ 모든 산업의 취업자 증가

○ 2014년 2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농림어업(29천 명, 2.6%), 제조업(135천 명, 3.3%), 건설업(59천 명, 3.7%), 도소매·음식숙박업(328천 명, 5.9%),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17천 명, 2.5%), 전기·운수·통신·금융업(67천 명, 2.3%) 등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음.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2		2013				2014		
	4/4분기	1/4분기	2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1월	2월				1월	2월
전 산업	24,804 (1.4)	24,184 (1.1)	23,984 (0.8)	25,326 (1.3)	25,410 (1.7)	25,346 (2.2)	24,759 (2.9)	24,819 (3.5)	
농림어업	1,518 (-0.2)	1,167 (-0.7)	1,094 (-1.4)	1,686 (-1.6)	1,724 (1.1)	1,504 (-1.0)	1,086 (4.5)	1,123 (2.6)	
제조업	4,196 (3.5)	4,156 (3.0)	4,139 (1.9)	4,182 (3.0)	4,152 (0.6)	4,245 (1.2)	4,280 (2.2)	4,274 (3.3)	
건설업	1,792 (-2.2)	1,656 (-3.7)	1,604 (-5.6)	1,801 (-0.4)	1,775 (0.2)	1,783 (-0.5)	1,688 (1.1)	1,663 (3.7)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603 (1.1)	5,534 (-0.7)	5,539 (-0.5)	5,585 (-0.2)	5,652 (0.7)	5,751 (2.6)	5,855 (4.4)	5,867 (5.9)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8,682 (2.3)	8,656 (3.1)	8,600 (3.3)	8,974 (1.7)	8,990 (2.5)	8,994 (3.6)	8,766 (2.7)	8,816 (2.5)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2,998 (-0.4)	2,999 (-0.4)	2,994 (-0.4)	3,082 (3.1)	3,102 (3.8)	3,054 (1.9)	3,067 (2.4)	3,061 (2.3)	

주 : 1)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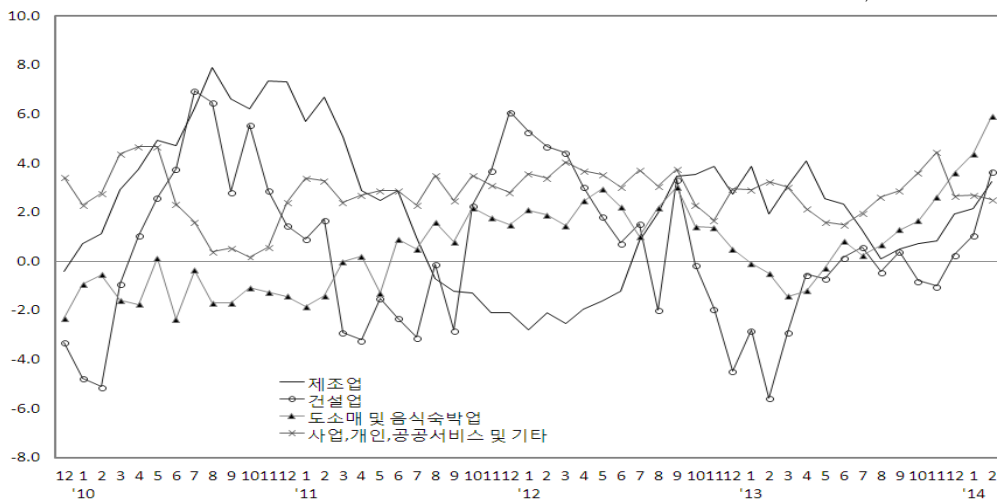
2) 2009년부터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함.

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 통계청(2014. 3), 『2014년 2월 고용동향』.

〔그림 6〕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상용근로자 중심의 취업자 증가

- 2014년 2월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6,52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2천 명(0.5%) 증가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8,29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03천 명(4.6%) 증가하였음.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1,970천 명으로 635천 명(5.6%) 증가하였고, 임시근로자는 4,824천 명으로 99천 명(2.1%), 일용근로자는 1,501천 명으로 70천 명(4.9%) 증가함.
 -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임금근로자 증가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임시·일용 근로자도 소폭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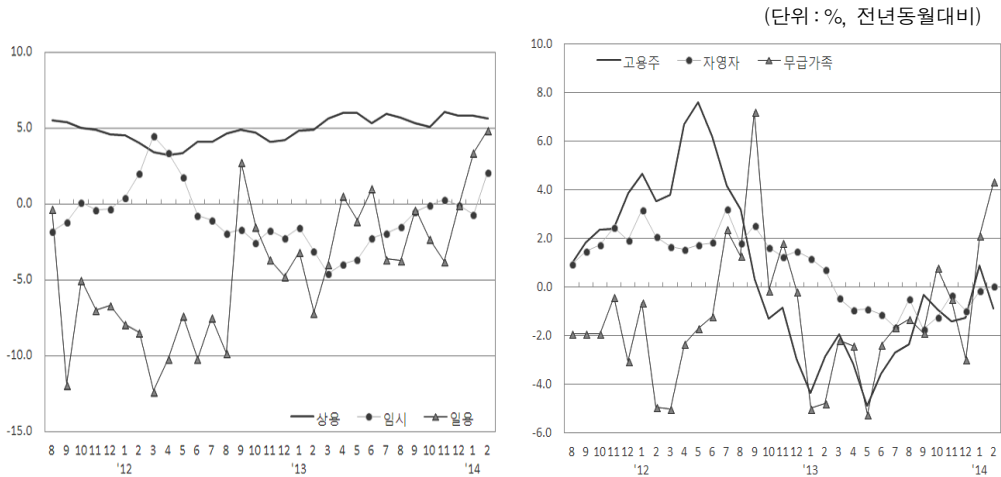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2		2013				2014	
	4/4분기	1/4분기	2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1월	2월
전 체	24,804 (1.4)	24,184 (1.1)	23,984 (0.8)	25,326 (1.3)	25,410 (1.7)	25,346 (2.2)	24,759 (2.9)	24,819 (3.5)
비임금근로자	6,917 (0.6)	6,578 (-1.1)	6,491 (-1.0)	7,006 (-2.1)	7,049 (-1.5)	6,854 (-0.9)	6,503 (0.5)	6,523 (0.5)
자영업주	5,672 (0.6)	5,520 (-0.5)	5,476 (-0.3)	5,726 (-1.8)	5,740 (-1.4)	5,618 (-0.9)	5,460 (0.1)	5,464 (-0.2)
무급가족종사자	1,245 (0.5)	1,059 (-3.9)	1,015 (-4.8)	1,280 (-3.4)	1,309 (-1.6)	1,236 (-0.8)	1,043 (2.1)	1,493 (-0.9)
임금근로자	17,887 (1.7)	17,606 (1.9)	17,493 (1.6)	18,320 (2.6)	18,361 (2.9)	18,492 (3.4)	18,256 (3.8)	18,296 (4.6)
상용근로자	11,288 (4.3)	11,379 (5.1)	11,336 (4.9)	11,697 (5.8)	11,848 (5.6)	11,925 (5.6)	11,952 (5.8)	11,970 (5.6)
임시근로자	4,933 (-2.2)	4,762 (-3.1)	4,725 (-3.1)	4,945 (-3.3)	4,928 (-1.3)	4,935 (0.0)	4,757 (-0.7)	4,824 (2.1)
일용근로자	1,666 (-3.3)	1,465 (-4.8)	1,431 (-7.1)	1,678 (0.2)	1,585 (-2.6)	1,631 (-2.1)	1,548 (3.4)	1,501 (4.9)
36시간 미만	3,219 (0.0)	5,563 (67.9)	9,964 (197.8)	4,821 (46.8)	5,083 (7.6)	3,395 (5.5)	3,568 (5.9)	3,667 (-63.2)
36시간 이상	21,271 (1.6)	18,099 (-9.9)	13,414 (-32.5)	20,217 (-5.6)	19,810 (0.2)	21,636 (1.7)	20,517 (2.4)	20,699 (54.3)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통계청(2014. 3), 『2014년 2월 고용동향』.

〔그림 7〕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증가율



주 :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고, 자영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자료 : 통계청, KOSIS.

- 2014년 2월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66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297천 명(-63.2%) 급감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0,69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285천 명(54.3%) 급증함.
 - 이는 2013년 설 연휴기간 일부가 당시 조사기간에 포함되었던 영향임.

◆ 전 학력 실업률 상승

- 2014년 2월 중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은 50~59세(2.3%, -0.3%p)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상승하였음.
- 교육정도별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중졸 이하(5.0%, 0.8%p), 고졸(4.5%, 0.7%p), 대졸 이상(4.3%, 0.3%p)에서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음.
- 2014년 2월 중 전체 실업자 1,178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무경험 실업자는 9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천 명 증가하였고, 취업유경험 실업자는 1,079천 명으로 164천 명 증가했음.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 명, %)

	2012		2013				2014	
	4/4분기	1/4분기	2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1월	2월
전 체	722 (2.8)	907 (3.6)	990 (4.0)	812 (3.1)	777 (3.0)	733 (2.8)	891 (3.5)	1,178 (4.5)
15~29세	284 (7.0)	343 (8.4)	371 (9.1)	325 (7.9)	328 (7.9)	328 (7.9)	372 (8.7)	473 (10.9)
30~39세	162 (2.7)	195 (3.3)	204 (3.5)	180 (3.0)	170 (2.9)	155 (2.6)	150 (2.6)	211 (3.6)
40~49세	122 (1.8)	143 (2.1)	142 (2.1)	146 (2.1)	131 (1.9)	114 (1.7)	133 (2.0)	164 (2.4)
50~59세	102 (1.8)	127 (2.3)	139 (2.6)	106 (1.8)	106 (1.8)	88 (1.5)	113 (2.0)	134 (2.3)
60세 이상	52 (1.6)	99 (3.4)	133 (4.6)	56 (1.6)	42 (1.2)	48 (1.4)	122 (4.0)	196 (6.2)
중졸 이하	98 (2.0)	148 (3.3)	184 (4.2)	101 (2.0)	86 (1.8)	84 (1.8)	164 (3.8)	217 (5.0)
고졸	321 (3.2)	367 (3.7)	381 (3.8)	341 (3.3)	345 (3.4)	335 (3.3)	431 (4.2)	475 (4.5)
대졸 이상	303 (2.9)	392 (3.7)	424 (4.0)	370 (3.4)	346 (3.1)	313 (2.8)	297 (2.7)	487 (4.3)
취업무경험실업자	39	61	75	48	54	49	76	99
취업유경험실업자	683	845	915	764	723	684	815	1,079

주: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통계청(2014. 3), 『2014년 2월 고용동향』.

(배기준,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13년 12월 명목임금상승률 전년동월대비 2.1% 상승

- 2013년 12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547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3,473천 원) 2.1% 상승함.
 - 2013년 12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정액급여, 초과급여의 증가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2.1% 상승한 3,799천 원을 기록함.

- 상용근로자의 기본급 등이 포함된 정액급여는 전년동월대비 3.7% 상승해 2,699천 원을 기록하였고, 초과급여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4.6% 상승하여 193천 원으로 증가한 반면, 특별급여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2.8% 감소하여 907천 원을 기록함.
 ※ 초과급여: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임시·일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1.3% 상승한 1,398천 원의 임금총액을 기록함.
- 2013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111천 원으로 전년동평균(2,995천 원)대비 3.9% 상승함.
-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2012년 대비 3.8% 상승한 3,299천 원을 기록함.
 - 상용근로자 가운데 정액급여는 2012년 대비 4.4%, 초과급여는 1.7%, 특별급여는 1.8% 상승함.
 - 임시·일용근로자는 2012년 대비 6.5% 상승한 1,377천 원의 임금총액을 기록함.

〈표 6〉 임금관련 주요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0=100.0)

		2010	2011	2012	2013		
					12월	12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2,816 (6.8)	2,844 (1.0)	2,995 (5.3)	3,473 (4.0)	3,111 (3.9)	3,547 (2.1)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047 (6.4)	3,019 (-0.9)	3,178 (5.3)	3,720 (4.1)	3,299 (3.8)	3,799 (2.1)
	정액급여	2,234 (4.5)	2,341 (4.8)	2,470 (5.5)	2,603 (5.3)	2,578 (4.4)	2,699 (3.7)
	초과급여	196 (12.2)	179 (-8.4)	181 (1.0)	184 (1.7)	184 (1.7)	193 (4.6)
	특별급여	617 (12.3)	498 (-19.3)	527 (5.8)	933 (1.3)	537 (1.8)	907 (-2.8)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056 (-1.6)	1,215 (15.1)	1,293 (6.4)	1,380 (4.7)	1,377 (6.5)	1,398 (1.3)
소비자물가지수		100.0 (2.9)	104.0 (4.0)	106.3 (2.2)	106.7 (1.4)	107.6 (1.2)	107.9 (1.1)
실질임금증가율		3.8	-2.9	3.1	2.5	2.6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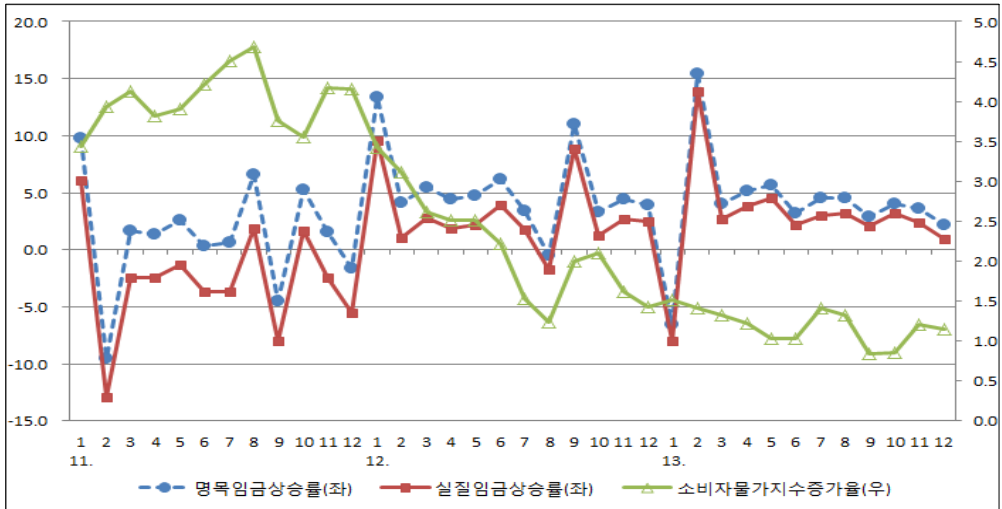
주: 1)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2) 1~12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그림 8]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 2010=100.0)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3년 12월 실질임금은 1.0% 상승함.
 - 2013년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2010년 기준)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1.0% 상승함 (그림 8 참조).
 - 201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2013년 실질임금 증가율은 2.6% 상승함.

◆ 2013년 12월 대부분 산업에서 임금상승

- 2013년 12월 기준 도매 및 소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임금이 상승함.
 - 2013년 12월 산업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상승률을 보면, 광업(6.2%), 운수업(5.3%), 건설업(5.0%)에서 임금이 크게 상승했고, 이 외에도 대부분 산업에서 전년동월대비 임금총액이 1~3% 증가함.
 - 반면 도매 및 소매업(-1.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0.7%),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1.0%)은 감소함.
- 2013년 기준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임금이 상승함.
 - 2013년 기준 임금상승이 가장 높게 나타난 산업은 건설업(6.2%)이며, 운수업(5.5%), 여가관련 서비스업(5.2%), 사업서비스업(5.2%), 제조업(4.7%), 교육서비스업(4.4%) 등에서도 임금상승이 두드러짐.

〈표 7〉 산업별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1	2012	2013		
			12월	12월	
전 산업	2,844(1.0)	2,995(5.3)	3,473(4.0)	3,111(3.9)	3,547(2.1)
광업	3,309(10.3)	3,470(4.9)	3,231(-12.2)	3,557(2.5)	3,433(6.2)
제조업	3,034(1.6)	3,221(6.1)	3,916(4.7)	3,371(4.7)	4,025(2.8)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482(0.5)	5,388(-1.7)	8,525(-11.2)	5,542(2.9)	8,777(3.0)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2,488(1.9)	2,654(6.7)	3,179(9.1)	2,743(3.3)	3,202(0.7)
건설업	2,181(12.2)	2,273(4.2)	2,421(5.8)	2,414(6.2)	2,543(5.0)
도매 및 소매업	2,942(6.3)	3,122(6.1)	3,795(1.1)	3,168(1.5)	3,750(-1.2)
운수업	2,393(0.5)	2,589(8.2)	2,918(8.6)	2,732(5.5)	3,073(5.3)
숙박 및 음식점업	1,653(13.0)	1,738(5.2)	1,843(3.4)	1,772(1.9)	1,894(2.7)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3,692(9.1)	3,851(4.3)	4,163(6.5)	3,936(2.2)	4,186(0.6)
금융 및 보험업	4,771(1.9)	4,988(4.6)	5,671(3.6)	5,058(1.4)	5,678(0.1)
부동산업 및 임대업	2,017(2.6)	2,194(8.8)	2,493(9.8)	2,269(3.4)	2,551(2.3)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870(-2.2)	4,112(6.3)	5,193(11.2)	4,243(3.2)	5,285(1.8)
사업서비스업	1,700(-8.0)	1,789(5.3)	1,965(4.5)	1,883(5.2)	2,009(2.2)
교육서비스업	2,985(-5.4)	3,123(4.6)	3,100(3.6)	3,261(4.4)	3,156(1.8)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490(-4.0)	2,608(4.7)	2,803(-2.4)	2,662(2.0)	2,782(-0.7)
여가관련 서비스업	2,130(1.1)	2,211(3.8)	2,778(0.1)	2,326(5.2)	2,793(0.6)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185(3.9)	2,228(2.0)	2,468(4.8)	2,226(-0.1)	2,442(-1.0)

-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총액.
- 2)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 3) 9차 산업분류 기준.
- 4) 1~12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3년 12월 모든 규모의 사업체에서 상용근로자와 비상용근로자의 임금상승률 상승

○ 2013년 12월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명목임금총액 상승률은 5~299인 규모와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 모두에서 상승함.

- 2013년 12월 기준 상용근로자 5~299인 규모의 상용임금총액은 3,304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0% 증가하였고, 이는 정액급여(3.8%)와 초과급여(1.8%) 증가의 영향임.
- 반면 5~299인 규모의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4.8%)는 감소함.
- 한편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의 상용임금총액은 5,569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2% 증가하였고, 이는 정액급여(3.4%), 초과급여(10.7%)의 영향임.

- 반면 300인 이상 규모의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0.8%)는 감소함.
- 2013년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명목임금총액 상승률은 규모별 사업체 모두에서 상승함.
 - 상용근로자 5~299인 규모의 상용근로자 임금총액 상승률(2,983천 원)은 정액급여(4.3%)와 초과급여(3.0%)의 증가 영향으로 3.7% 증가하였고, 특별급여(-0.3%)는 소폭 감소함.
 - 한편 300인 이상 규모의 상용근로자 임금총액 상승률(4,583천 원, 3.6%)은 정액급여(4.3%), 특별급여(3.0%)의 영향으로 상승하였지만, 초과급여(-1.6%)는 하락함.
 - 2013년 기준 비상용근로자 명목임금총액 상승률은 5~299인 규모에서는 7.0% 증가를 기록하였으나 300인 이상 규모에서는 0.8% 증가에 그침.

〈표 8〉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비상용근로자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1	2012	12월	2013	12월
전 규모 (5인 이상)	상용임금총액	3,019(-0.9)	3,178(5.3)	3,720(4.1)	3,299(3.8)	3,799(2.1)
	정액급여	2,341(4.8)	2,470(5.5)	2,603(5.3)	2,578(4.4)	2,699(3.7)
	초과급여	179(-8.4)	181(1.0)	184(1.7)	184(1.7)	193(4.6)
	특별급여	498(-19.3)	527(5.8)	933(1.3)	537(1.8)	907(-2.8)
	비상용임금총액	1,215(15.1)	1,293(6.4)	1,380(4.7)	1,377(6.5)	1,398(1.3)
5~299인	상용임금총액	2,675(-0.9)	2,834(5.9)	3,239(5.2)	2,938(3.7)	3,304(2.0)
	정액급여	2,204(5.9)	2,333(5.9)	2,441(5.2)	2,433(4.3)	2,534(3.8)
	초과급여	150(-14.5)	156(3.5)	162(5.7)	160(3.0)	165(1.8)
	특별급여	321(-27.3)	345(7.7)	635(4.9)	345(-0.3)	605(-4.8)
	비상용임금총액	1,216(14.8)	1,301(7.0)	1,389(4.4)	1,392(7.0)	1,418(2.1)
300인 이상	상용임금총액	4,273(-0.4)	4,424(3.5)	5,450(2.8)	4,583(3.6)	5,569(2.2)
	정액급여	2,842(2.3)	2,965(4.3)	3,183(6.0)	3,093(4.3)	3,290(3.4)
	초과급여	286(6.7)	275(-3.9)	265(-5.1)	270(-1.6)	293(10.7)
	특별급여	1,146(-8.0)	1,185(3.4)	2,002(-0.8)	1,220(3.0)	1,986(-0.8)
	비상용임금총액	1,208(17.8)	1,209(0.1)	1,296(9.6)	1,219(0.8)	1,196(-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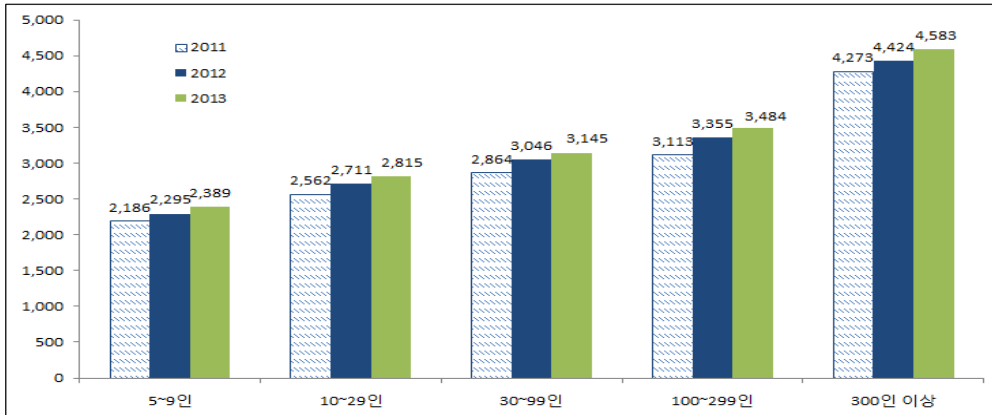
주: 1)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2) 1~12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9] 상용근로자 사업체규모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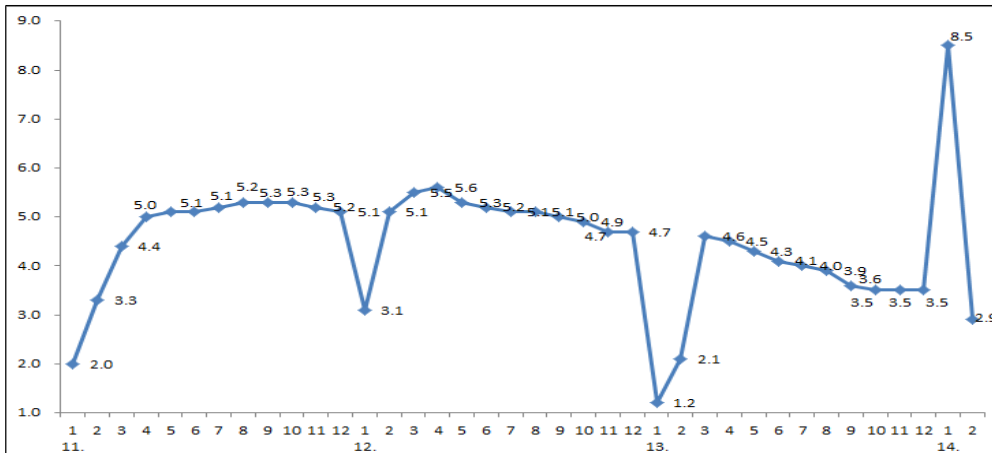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4년 2월 협약임금 인상률 2.9%

- 2014년 2월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2.9%로 2013년 2월 인상률(2.1%)에 비해 0.8%p 상승함.
 - 2014년 1월 수준에서 크게 하락했으나, 전년동월(2013년 2월)에 비해 소폭 상승한 수준임.

[그림 10]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단위: %)



주: 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2)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 누계분 인상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e-나라지표』, www.index.go.kr

◆ 2013년 12월 근로시간 4.9% 증가

- 2013년 12월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8.2시간(4.9%) 증가함.
 - 2013년 12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174.6시간)은 전년동월(166.4시간)에 비해 8.2시간(4.9%) 증가함(표 9 참조).
 - ※ 월력상 근로일수가 2012년 12월 대비 2일 많은 영향이 반영됨.
 - 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81.0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5.7% 증가한 반면, 비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20.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4.4% 감소함.
- 2013년 근로시간은 전년대비 1.0% 감소함.
 - 2013년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72.6시간을 기록하여 2012년(174.3시간)에 비해 1.7시간(-1.0%) 감소함.
 - 2013년 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78.1시간으로 전년대비 1.0% 감소한 반면, 비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22.5시간으로 전년대비 0.2% 증가함.

〈표 9〉 내역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

(단위: 시간, %)

	2011	2012	2013		
			12월	12월	12월
전체 근로시간	176.3(-0.2)	174.3(-1.1)	166.4(-9.5)	172.6(-1.0)	174.6(4.9)
상용총근로시간	182.1(-1.4)	179.9(-1.2)	171.2(-10.2)	178.1(-1.0)	181.0(5.7)
상용소정실근로시간	168.5(0.1)	167.2(-0.8)	158.4(-10.7)	165.6(-1.0)	168.0(6.1)
상용초과근로시간	13.6(-17.1)	12.8(-5.9)	12.8(-3.0)	12.5(-2.3)	13.0(1.6)
비상용근로시간	122.5(6.2)	122.3(-0.2)	125.7(-0.6)	122.5(0.2)	120.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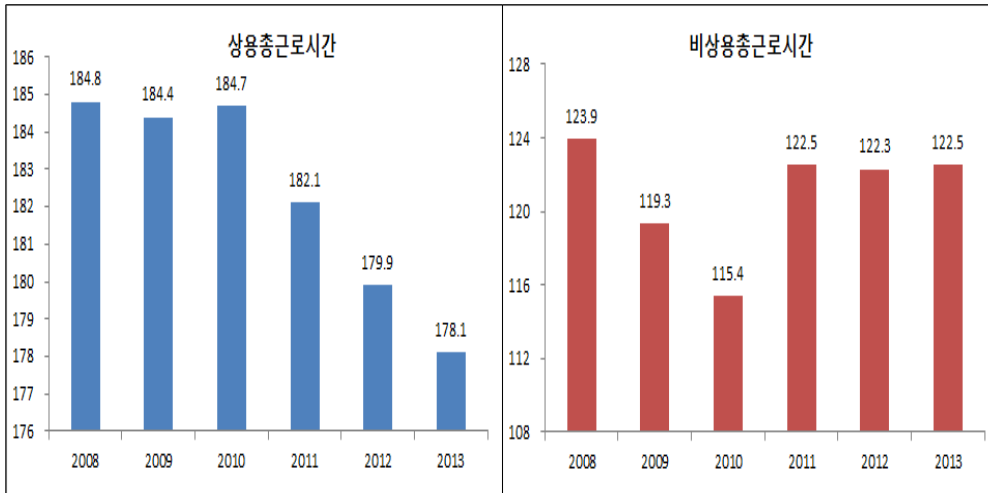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근로시간.
 2)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3) 1~12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3년 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 감소세 지속
 - 2013년 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2010년 이후 하락추세를 지속(그림 11 좌측 참조)
 - 한편 2013년 비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2010년 이후 증가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2008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그림 11 우측 참조).

[그림 11] 각 연도 월평균 상용총근로시간(좌)과 비상용총근로시간(우)

(단위 : 시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3년 12월 건설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근로시간 증가

- 2013년 12월 근로일수가 2012년 12월 대비 2일 증가한 영향으로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근로시간이 증가함.
 - － 2013년 12월 전년동월대비 산업별 근로시간을 보면, 교육서비스업(11.2%), 금융 및 보험업(9.9%),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9.5%),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8.5%) 등에서 근로시간이 크게 증가했고, 그 외 산업에서 대부분 근로시간이 증가함.
 - － 반면 건설업(151.1시간, -0.6%)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함.
 - － 2013년 12월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부동산 및 임대업(191.9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건설업(151.1시간)이 가장 짧은 업종으로 나타남.
- 2013년 근로시간은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감소함.
 - － 연간근로시간으로 보면, 2013년 12월과 크게 다름.
 - － 2013년 근로시간 감소폭이 큰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77.3시간, -5.0%), 광업(180.6시간, -2.5%), 운수업(177.8시간, -2.1%), 제조업(185.0시간, -0.8%) 등이며, 대부분의 산업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함.
 - － 반면 건설업(152.7시간, 0.1%)에서 근로시간이 소폭 증가함.

〈표 10〉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시간, %)

	2011	2012	2013	
			12월	12월
전 산업	176.3(-0.2)	174.3(-1.1)	166.4(-9.5)	174.6(4.9)
광업	186.9(-0.6)	185.3(-0.9)	176.8(-10.3)	185.2(4.8)
제조업	190.6(-0.8)	186.4(-2.2)	178.8(-9.4)	189.4(5.9)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77.1(0.1)	175.5(-0.9)	170.0(-8.7)	170.5(0.3)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186.2(-3.5)	184.8(-0.8)	177.6(-9.0)	182.0(-1.5)
건설업	153.9(5.3)	152.5(-0.9)	152.0(-3.5)	151.1(-0.6)
도매 및 소매업	175.1(-1.2)	174.5(-0.3)	167.2(-9.0)	175.7(5.1)
운수업	181.6(-1.6)	181.7(0.1)	173.9(-8.9)	180.5(3.8)
숙박 및 음식점업	186.2(13.7)	186.6(0.2)	182.2(-6.4)	183.4(0.7)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164.5(-1.0)	163.9(-0.4)	151.2(-11.7)	165.5(9.5)
금융 및 보험업	163.6(-1.0)	163.4(-0.1)	150.9(-12.3)	165.8(9.9)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4.2(-3.1)	193.4(-0.4)	185.3(-10.3)	191.9(3.6)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6.2(-0.1)	165.3(-0.5)	152.6(-13.3)	165.6(8.5)
사업서비스업	172.1(-4.4)	173.1(0.6)	163.9(-10.3)	174.0(6.2)
교육서비스업	152.9(2.0)	151.1(-1.2)	138.2(-13.3)	153.7(11.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3.5(-1.7)	174.8(0.7)	167.5(-9.1)	171.5(2.4)
여가관련 서비스업	157.1(-1.0)	158.1(0.6)	154.0(-5.4)	159.8(3.8)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73.6(-0.2)	168.9(-2.7)	163.8(-8.7)	167.8(2.4)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기준.
 2)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3) 9차 산업분류 기준.
 4) 1~12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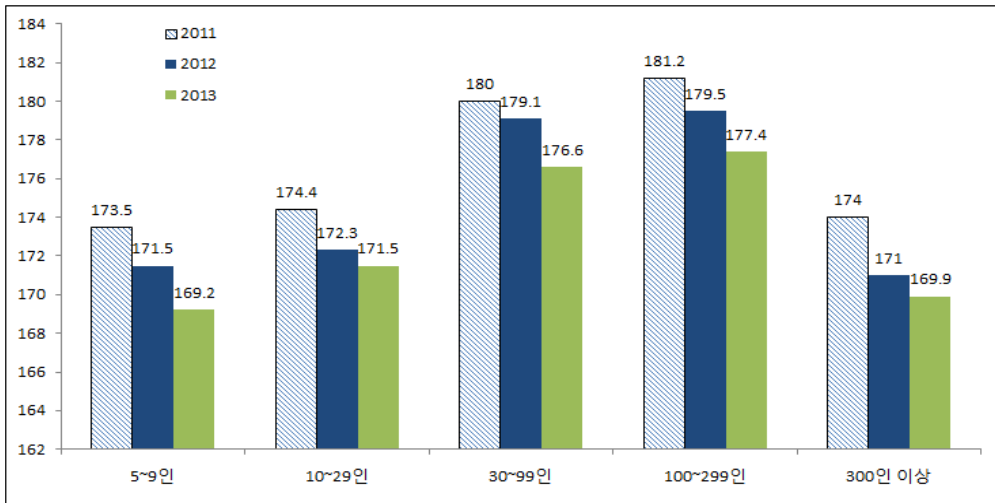
◆ 2013년 12월 모든 규모에서 근로시간 증가

- 2013년 12월 사업체규모별 전체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모든 규모에서 증가
 - 세부 규모별로 보면, 상용근로자 5~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0.7간으로 전년동월대비 3.6%, 10~2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4.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3.8%, 30~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8.3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4.9%, 100~2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8.3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4.5%, 300인 이상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2.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8.0% 증가함.
- 한편 2013년 사업체규모별 전체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모든 규모에서 감소
 - 상용근로자 5~9인 사업체의 2013년 총 근로시간은 169.2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1.3%, 10~2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1.5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0.5%, 30~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6.6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1.4%, 100~2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7.4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1.2%, 300인 이상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69.9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0.6% 감소함(그림 12 참조).

[그림 12] 규모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

(단위: 시간)



주: 전체 근로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정성미,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

가계수지 동향

◆ 2013년 연간 2인 이상 전국가구의 소득과 소비 증가

- 2013년 연간 전국가구(2인 이상)의 소득은 근로소득(2.8%), 사업소득(0.4%), 이전소득(3.5%)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2.1% 증가하였으며, 물가상승을 제외한 실질증가율은 0.8%로 나타남.
 - 전국가구의 경상소득은 근로·사업·이전소득의 증가에 기인하여 전년대비 2.3% 증가하였으며, 비경상소득은 3.6% 감소하였음.

- 소비지출은 가정용품·가사서비스(6.6%), 주거·수도·광열(4.2%), 보건(3.1%)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여 전년대비 0.9% 증가(실질로는 0.4% 감소)하였고, 교육지출은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비소비지출의 경우, 공적비소비지출 중 사회보험(5.9%), 연금(4.5%), 경상조세(2.8%), 비경상조세(2.6%)가 증가하였으며, 사적비소비지출 중 비영리단체로 이전(5.1%), 가구간이전지출(1.3%)은 증가하였으나 이자비용(-1.7%)은 감소해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2.8% 증가하였음.
 - 2013년 연간 전국가구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38만 1천 원으로 전년대비 1.9% 증가하였음.
- 2013년 4/4분기 전국가구(2인 이상)의 소득은 전년동기대비 1.7% 증가하였으며(실질 0.7% 증가), 경상소득은 1.7%, 비경상소득은 3.1% 증가하였음. 소비지출은 교육(-0.2%)을 제외한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10.7%), 음식·숙박(5.2%), 오락·문화(4.8%) 등 전 비목에서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3.0% 증가하였으며, 실질로는 1.9% 증가하였음.

〈표 11〉 2인 이상 전국가구의 분기별 가계수지 동향

(단위: 천 원, %)

	2012				2013					
	4/4분기		연간		3/4분기		4/4분기		연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소득	4,092.6	5.4	4,076.9	6.1	4,259.9	2.9	4,163.2	1.7	4,161.8	2.1
경상소득	3,974.0	5.4	3,934.7	6.2	4,120.6	2.8	4,041.0	1.7	4,024.7	2.3
근로소득	2,719.5	7.3	2,688.8	7.7	2,866.5	3.3	2,778.1	2.2	2,763.0	2.8
사업소득	873.7	0.5	854.2	1.6	856.4	0.7	876.8	0.4	857.5	0.4
재산소득	22.3	44.8	20.9	28.8	17.9	-12.7	20.2	-9.5	20.3	-3.0
이전소득	358.4	1.9	370.8	5.3	379.9	4.6	365.9	2.1	383.9	3.5
비경상소득	118.6	4.2	142.2	4.3	139.3	4.8	122.2	3.1	137.1	-3.6
소비지출	2,412.3	1.4	2,457.4	2.7	2,493.5	1.1	2,483.6	3.0	2,480.7	0.9
비소비지출	731.9	4.1	759.5	5.1	807.7	2.0	759.4	3.8	780.9	2.8
처분가능소득	3,360.6	5.7	3,317.4	6.4	3,452.2	3.1	3,403.8	1.3	3,381.0	1.9
흑자액	948.3	18.5	860	18.4	958.7	8.6	920.1	-3.0	900.2	4.7
흑자율	28.2	3.0p	25.9	2.6p	27.8	1.4p	27.0	-1.2p	26.6	0.7p
평균소비성향	71.8	-3.0p	74.1	-2.6p	72.2	-1.4p	73.0	1.2p	73.4	-0.7p

주: 1) 가처분소득=소득-비소비지출(조세, 사회보험료 등의 공적지출과 타가구 송금 등의 사적지출이 포함됨)

2) 흑자액=가처분소득-소비지출

3)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가처분소득)×100. 흑자율 및 평균소비성향의 증감률은 %p.

자료: 통계청(2014. 2), 『2013년 4/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

(성재민, 동향분석팀 전문위원)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지난 2월 노동쟁의와 관련된 조정사건 접수 건수는 119건(이월사건 포함 건수)
 - 조정은 노동쟁의 당사자의 주장을 청취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후 당사자에게 수락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로, 조정사건 통계는 집단적 노사관계 지형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임.
 - 지난 2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 건수는 작년 동월 건수(72건)보다 47건 높은 수치임.
- 지난 2월 조정성립률 61.6%
 - 지난 2월 조정성립률은 작년 동월 성립률(69.4%)보다 7.8% 낮아진 수치임.
 - ※ 조정성립률=(조정성립)/(조정성립+조정불성립)×100

〈표 12〉 2013, 2014년 2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14. 2	119	102	45	21	24	28	1	27	17	12	17	61.6
2013. 2	72	54	34	19	15	15	5	10	1	4	18	69.4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복수노조사건

- 지난 2월 복수노조사건 접수건수는 85건(이월사건 포함 건수)
 - 복수노조와 관련된 사건에는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신청, 그리고 교섭단위 분리 결정신청 등이 포함됨.
 - 지난 2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건수는 작년 동월(30건)보다 55건 높은 수치임.

- 진행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30.3%(20건), 기각·각하·취하 비율이 69.7%(46건)를 차지함.

〈표 13〉 2013, 2014년 2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건수	처리내역							진행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14. 2	85	66	19	1	26	6	14	0	19
2013. 2	30	21	2	3	6	4	6	0	10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둘러싼 노정 갈등 확산

- 정부, 공공기관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에 박차
 - 지난해 11월, 현오석 부총리는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의 대대적 개혁을 예고함.
 - 정부는 부채비율이 높고 방만경영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38개 공공기관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 기관에게 정상화 계획을 제출 받은 바 있음. 나머지 264개 기관에 대해서도 정상화 계획 수립 현황을 점검중임.
 - 정부는 이들 기관의 정상화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년 임금 동결, 기관장 해임 등 불이익을 주기로 결정함.
- 노동계, ‘공공기관 부채5적’ 선정 및 고발
 - 언론에 따르면, 양대노총 공공기관노조 공대위는 공공기관 부채를 키운 책임자 5명을 선정하고, 이들을 배임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
 - 공대위는 3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개혁은 공공기관 부채의 진짜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 현오석 부총리,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5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힘.
 - 공대위의 주장은 공공기관 부채 증가가 4대강사업이나 보금자리 주택 등 정부의 일부 정책 실패 때문이지 방만경영 때문이 아니라는 것임.
 - 공대위는 이날 고발장 접수를 시작으로 공동대응을 본격화한다고 밝힘. 11일에는 304개 전체 공공기관 노조들이 각 기관 앞에서 동시다발 출근집회를 진행하였고, 22일에는 서울역광장에서 공공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음.

◆ **노사정소위, 의제 선정 합의**

- 근로시간단축·노사관계개선·통상임금 등 세 가지 의제에 합의
 - 노동계의 잇따른 불참 선언에 의해 초반부터 난항을 겪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노사정소위)는 한국노총의 참여 결정에 따라 3월 10일 제2차 대표교섭단 회의를 재개하고 의제를 확정함.
 - 대표교섭단 회의 참가자들은 근로시간단축 문제를 가장 먼저 논의하고 곧바로 노사(노정)관계 개선 문제를 의제로 다루기로 합의함. 통상임금 문제는 3순위로 다룰 예정임.
 - 대표교섭단장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노사·노정관계 개선의제에 대해 3분의 1 논의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함.
 - 한국노총은 노사·노정관계 개선의제를 다루면서 정리하고 요건강화, 공공부문 노사관계, 특수고용직, 노조전임자 문제 등 노동기본권 문제를 포함시켜 입법으로 연결시키겠다고 밝힘.

◆ **의사협회 집단휴진**

- 의료수가 인상, 원격의료 등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갈등 확산
 - 전국의 의사들이 의료수가 인상,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자회사 설립 허용 등 보건 의료 정책에 반대하며 파업에 나섬.
 -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3월 10일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회원들이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하루 동안 집단휴진에 들어갔다”고 밝힘.
 -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한 것은 2000년 의약분업에 의한 집단휴진 후 14년 만임.
 - 보건복지부가 이날 정오를 기준으로 전국 251개 보건소를 통해 파악한 개원의 집단휴진 참여율은 29.1%로 집계됨.
 - 의사협회는 23일까지 환자당 15분 진료와 전공의 하루 8시간 근무와 같은 준법투쟁을 전개하고, 24일부터 29일까지 필수진료인력을 포함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음.
- 의협-보건복지부 협상 잠정 합의
 -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건강보험제도, 의료제도, 의료현장 불합리 규제 등 4개 분야에 대해 상호 의견을 보완해 합의했다”며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도 추가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힘.

- 양측은 원격의료 도입에 앞서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입법 과정에 반영하기로 합의하고, 의료 자회사 설립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기로 함.
- 또한 양측은 건강보험 수가와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위원의 3분의 1을 구성하는 공익대표를 가입자(시민단체 등)와 공급자(의협 등)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합의함.
- 의사협회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3월 19일까지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과반수가 수용할 경우 24일로 예정된 2차 휴진을 철회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2차 휴진에 돌입한다고 밝힘.

○ 노동·시민단체 반발

-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 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3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바람과는 관계없는 밀실합의인 2차 의정협의를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함.
-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논평을 통해 “이번 의정합의는 의협 집단휴진의 본질이 의료 민영화 반대가 아닌 의료계 실리확보에 있었다는 것을 명백히 확인한 것”이라며 “국민의 보험료와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정부와 의협의 야합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고 언급함.

◆ 삼성전자서비스 위장폐업 논란

○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들의 잇따른 폐업 선언

- 삼성전자서비스와 금속노조에 따르면, 2월 27~28일 부산 해운대센터와 충남 아산센터, 경기도 이천센터를 운영하는 협력업체가 폐업방침을 밝힘. 언론에 따르면, 3개 업체 경영자 모두 “경영악화와 건강악화”를 폐업이유로 제시함.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위장폐업”이라고 반발함.
-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는 “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활동 때문에 업체 사장들이 경영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짐.

○ 일부 협력업체와 3개월 계약연장

- 삼성전자서비스의 모든 협력업체들이 3월 말일부로 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서비스가 일부 업체에 일정한 성과달성을 전제로 단기간 계약연장을 한 것으로 알려짐.

- 금속노조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 경남 통영센터와 경기도 분당센터는 지난 2월 삼성전자서비스와 도급계약을 3개월 연장함.
- 노조는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가 체결한 계약기간 연장 합의서 내용을 주목함. 합의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는 AS완결률·미결일수·재서비스율의 기준을 정해 놓고, 미달성 시 경고를 주고, 경고가 2회 이상 누적되면 3개월 뒤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함. 또한 내근직의 경우 영업일 중 하루라도 센터를 폐쇄하면 경고를 주기로 함.
- 노조는 “3개월간 지켜보면서 노조의 파업과 집회 등으로 미결률이 늘어나면 사실상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뜻”이라며 “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노동3권이 전혀 없는 식물노조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함.
- 반면에 삼성전자서비스 측은 지난해 도급업무 성과가 떨어진 협력업체에 기회를 주기 위해 3개월간 계약을 연장했다는 입장임.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해운대·아산·이천센터의 폐업결정을 위장폐업으로 규정하고, 조만간 무기한 전면파업을 실시한다고 밝힘.

○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노조가입 확대

-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폐업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금속노조에 가입하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3월 16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지회장 위영일)에 따르면, 지난 14일 부산 지역에서 외근 AS기사들 중 유일하게 비조합원이었던 부산구포센터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함. 이달 들어 마산센터와 창원센터 노동자들도 노조에 가입하는 등 조합원이 100명 이상 늘어남. 이 외에도 조만간 노조가입 의사가 있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작년 7월 지회 출범 후 노조에 가입한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전국 176개 센터 중 67개 센터 1천500여 명에 머무름. 위영일 지회장은 “부산 해운대센터 위장폐업 등 노조탄압이 불거지면서 그간 정체돼 있던 노조가입에 물꼬가 터지고 있다”고 언급함.

◆ 서울시 대학 청소·시설·경비 파업 확산

○ 덕성여대·동덕여대·연세대분회 12일 전면파업 돌입

- 3월 12일 덕성여대·동덕여대·연세대분회의 파업에 따라, 공공운수노조 서경지

- 부 산하 14개 분회 중 전면파업을 벌이는 곳은 5곳(고려대분회, 경희대분회 포함)으로 늘어남.
- 당초 지부는 시중노임단가(7천900원)의 87.7%인 7천 원을 요구함. 지부는 이후 서울지노위의 조정과 교섭을 통해 시중노임단가의 80% 수준인 6천340원을 최종적으로 요구함.
- 3월 4일 교섭에서는 고려대 등 5개 사업장의 용역업무를 담당하는 씨앤에스가 시급 6천100원을 제시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이를 고수하고 있음.
- 씨앤에스 관계자는 “원청인 대학에서 임금인상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고 밝힘.
- 서경지부 관계자는 “원청이 모르쇠로 일관할 경우 14개 전 분회가 전면파업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언급함.

◆ SC저축은행 노사갈등

- 매각 앞둔 SC스탠다드저축은행 노사갈등 고조
 - 사무금융노조 SC저축은행지회(지회장 장지중)는 3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한 밀실매각이 진행되는 동안 직원들의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언급함.
 - 지회에 따르면, SC저축은행은 지난해 8월 SC금융지주의 저축은행 매각 발표 시 관련 정보를 지회에 제공하지 않았으며, 직원들에게 매각에 대한 무조건적인 협조를 요구함.
 - 지난해 12월 노조가 설립된 뒤에도 회사의 입장은 바뀌지 않음. 회사는 올해 단체교섭에서 ‘1년만 고용보장’과 ‘노조의 단체행동 금지’를 요구함.
 - 장 지회장은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고용안정이 철저히 배제된 이윤 나눠 먹기 식 밀실매각을 저지하고 고용보장과 단체협약을 쟁취하겠다”고 밝힘.

◆ KEC 정리해고와 노사갈등

- 반도체 제조업체 KEC, 정리해고 대상자 발표
 - 지난해 연말부터 희망퇴직을 실시해 온 KEC가 정리해고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 언론에 따르면, KEC는 4월 17일부로 670여 명의 직원 중 148명을 해고할 계획임. 향후 정리해고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짐.
 - KEC노조(위원장 공국희)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함. 공 위원장은 “2012년 상여금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했는데도 회사가 약속을 저버린 만큼 쟁의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언급함.

- 반면 회사 측은 “최근 5년간 1천5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해 인건비 절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함.
- 일각에서는 회사 측이 공장부지에 백화점 등 상업시설 유치를 위해 인력감축에 나섰다는 의혹이 일고 있음.

◆ **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갈등**

- 르노삼성자동차가 2012년에 이어 또다시 희망퇴직을 실시해 노사갈등이 격화됨
 - 르노삼성자동차노조(위원장 고용환)는 3월 13일 규탄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뉴스타트 프로그램’ 철회를 촉구함.
 - 뉴스타트 프로그램은 전직이나 창업을 원하는 노동자들이 퇴직하면 퇴직금 외에 30개월치 급여와 학자금을 지급하고,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짐.
 - 2012년 르노삼성자동차의 희망퇴직 실시로 800여 명이 퇴직한 바 있음. 올해의 경우, 3월 10일부터 한 달간 부산공장 생산직 중 기장(과장급) 500여 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신청을 받고 있음.
 - 노조는 이를 사실상 희망퇴직으로 간주하고 조합원들에게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린 상태임.
 - 언론에 따르면, 르노삼성은 올 하반기부터 닛산의 ‘로그’를 연간 7만 대 생산하고, 2016년부터는 SM5와 QM5 후속 모델을 생산할 계획임. 르노삼성은 국내 생산이 가능한 QM3 3만 대를 스페인에서 제조하여 한국에서 판매하기로 결정하여 논란에 휩싸인 바 있음.
 - 르노삼성자동차지회(지회장 황용식)는 “기업별노조와 공동투쟁은 물론이고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르노닛산 본사에 한국공장 투자를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언급함.

◆ **청소년유니온 출범**

- 청년유니온, 노년유니온에 이어 세 번째 세대별노조인 청소년유니온 출범
 - 청소년유니온(위원장 김종하)은 2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청소년이 보호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노조가 필요하다”며 “청소년이 구직자로서 차별받지 않고, 노동자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힘.
 - 청소년유니온은 △중고등학교 노동인권 교과서 제작 및 채택 △특성화고 현장실

습 중 발생하는 야간근로·휴일근로 강제악습 근절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인권침해 문제 개선에 주력할 계획임.

- 국제연합의 청소년 규정에 따라 만 15세부터 24세 미만 청소년은 누구나 청소년 유니온에 가입할 수 있음.

◆ 에스콰이어 노사합의

○ 에스콰이어 노사, 전면파업 두 달여 만에 협상 타결

- 언론에 따르면, 회사는 “노사관계 파탄과 장기파업을 해결하기 위해 사측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함.
- 에스콰이어노조(위원장 남봉희)는 3월 5일 사측과 최종 협상을 갖고 회사 정상화 방안과 지난해 임금·단체협약에 대한 노사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힘.
- 노사는 직영매장 수를 현행(23개)대로 유지하고, 판매직 조합원 범위는 과장급까지 확대하기로 함.
- 파업기간 중 미지급한 설 상여금 100%와 분할상여금 50%도 전액 지급하기로 함.
- 임금과 관련해서는 월 기본급 7만7천 원 정액인상에 합의하고 지난해 3월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함.
- 에스콰이어가 2009년 사모펀드인 H&Q로 매각된 뒤, 2012년 11월 전 직원의 35%에 해당하는 230명을 희망퇴직 시키면서 노사갈등이 촉발됨. 2013년 12월, 단체협약 일방 해지, 노조사무실 폐쇄 등에 따라 노조가 금년 1월 7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한 바 있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레미콘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6개 직종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 추진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은 3월 14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업 예방과 고용 촉진을 위한 고용보험 의무 가입 방안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함.
-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6개 직종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특례규정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관련 법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최 의원은 “4월 임시국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함. **KLI**

(송민수,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